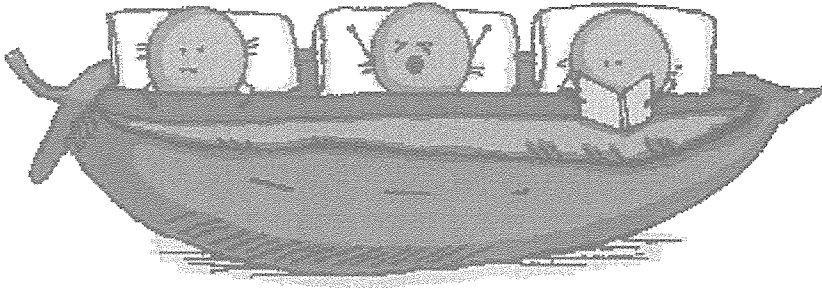


뉴 밀레니엄 베이비! 엄마 젖으로 출발



우리 나라의 엄마 젖 먹이는 비율을 보면 1997년에 14% 정도로, 이는 유럽(1995년) 75%, 미국(1993년) 52%, 일본(1995년) 45% 및 이란(1997년) 66%, 브라질(1996년) 42%, 이집트(1996년) 53%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.

또 한 조사 결과 병원에서 분만한 임산부들이 분만할 당시에는 엄마 젖을 먹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54%이었던데 비해 실제 분만 후에는 28~27%정도만 엄마 젖을 먹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엄마 젖을 먹일 경우 산모에 대해서는 산후 회복을 촉진시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며, 영유아에게는 적절한 영양 공급과 질병에 대한 면역력 증가, 두뇌 발달 등의 이로운 효과가 매우 많다.

WHO와 UNICEF도, 보통 아기들은 생후 6개월간 엄마 젖 이외의 다른 것, 심지어 물까지도 필요 없다고 하며 신생아의 엄마 젖 수유 현황, 모자 동실 여부, 엄마 젖 먹이기에 대한 교육 실시 정도 등 성공적인 엄마 젖 먹이기 10단계 항목 기준에 따라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.

엄마 젖은 아기가 먹고자 할 때까지 먹이도록 하며 적어도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꼭 엄마 젖을 먹도록 하는 것이 아기의 평생 건강을 보장한다.

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많은 임산부들이 엄마 젖의 이로운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과, 의료 기관의 소극적인 태도, 엄마 젖 대체 식품의 대대적인 광고와 엄마의 직업, 아기에게 젖을 먹일 장소나 분위기가 적절하지 못한 사회적 요인들이 엄마들로 하여금 아기들에게 꼭 필요한 엄마 젖 대신 조제 분유 등을 먹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.

이제 새 천년을 이끌어 갈 세대를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아기들에게 엄마 젖을 먹을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. 그러므로 보건·의료 기관은 꾸준한 홍보와 장려 활동을, 각 직장에서는 수유부를 위한 배려를, 각 공공 장소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유실을 마련하여 언제 어디서나 엄마들이 편안하게 엄마 젖을 먹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. 